

‘연하장·건강검진 사칭’... 연말연시 ‘스미싱’ 주의보

작년 지인 안부 등 사칭 60% ↑ 최근 공공기관 사칭 크게 늘어 스미싱 확인 ‘보호나라’ 이용을 ‘여신거래 안심차단’ 피해 예방

각종 모임과 행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노려 택배, 연하장, 청첩장, 부고장 등을 악용한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연시 기간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약 18% 늘었고 정부·공공기관 및 지인의 안부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은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 2022년 3만 7122건에서 지난해 50만330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1~10월)는 150만8879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은 택배를 사칭한 미끼 문자가 많았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건강검진 진단 결과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는 등의 공공기관 사칭 미끼 문자는 지난해 전체 탐지 건수의 69.5%였으며, 전체 스미싱에서 공공기관 사칭 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3% △2021년 8.2% △2022년 47.8%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스미싱은 악성 첨부파일이나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사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고도화된 수법을 이용한다. 만약 문자로 발송된 청첩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적힌 링크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통화목록, 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

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이 실행돼 금전 피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스미싱 범죄의 특성상 메시지 속 링크를 접속하지 않고 공식 경로를 통해 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먼저 공공·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피해를 간단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이동통신사·삼성전자가 협력해 만든 ‘안심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안심마크 서비스를 가입한 ‘실제 기관’이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파란색 마크와 함께 ‘확인된 발신번호’란 문구가 표시된다. 지난 2022년 서비스 출시 이후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8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 이용자에 한정해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받은 문자가 피싱·스팸 문자인지

헛갈린다면 스미싱 확인 서비스 ‘보호나라’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URL이 포함된 문자가 스미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호나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보호나라’를 검색한 뒤 채널 목록에 보호나라가 나오면 오른쪽 노란색 ‘채널 추가’ 버튼(ch+)을 눌러 추가한다. 이후 보호나라 채팅방에서 왼쪽 아래 ‘스미싱’ 버튼을 누르고, 확인이 필요한 수십 문자를 복사해 채팅방에 붙여넣기 한다. 복사할 때 실수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URL 주소가 포함되도록 복사하되 문자 길이는 20자~300자로 입력해야 한다.

정상 문자면 ‘정상’, 스미싱 문자면 ‘악성’, 분석 중인 최초 신고 메시지는 ‘주의’라는 세 가지 답변을 제공하며, ‘악성’인 경우는 곧바로 해당 메시지를 삭제·차단

해야 한다. ‘주의’로 표시된 문자는 10분 이후 답장 하단 ‘스미싱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이 서비스는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개인·금융 정보 탈취를 통한 대출이 실행돼 금전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본인의 신규 거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마트, ‘작아도 맛있는 수입과일’ 선배 롯데마트는 고품질로 야기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작아도 맛있는 수입 과일’ 시리즈를 출시했다. ‘작아도 맛있는 수입 과일’ 상품은 체리와 바나나 2개 품목이다. ‘작아도 맛있는 체리(칠레산/팩/300g)’를 7900원대에 판매한다. ‘작아도 맛있는 스위트오 바나나(720g 내외/필리핀산)’를 일반 상품대비 50% 이상 저렴한 1900원대에 대형마트 단독으로 선보인다.

롯데마트 제공

광주은행, 임원급 부행장보 5명 내부 발탁

조직 개편·인적 쇄신

광주은행은 임원급 부행장보 5명을 내부 발탁해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김종민 영업부장, 임형수 투자금융부장, 고재덕 서울영업부장,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 김우진 감사부장이 새롭게 임원(부행장보)에 선임됐으며, 기존 부행장 박종준·조계준·양성현·한형구·정창주 5명은 퇴임한다.

광주은행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영업 실적이 우수한 영업통과 전문성을 겸비한 혁신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조직의 안정과 영업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관영업부와 신탁연금부를 각각 ‘기관영업본부’와 ‘신탁본부’로 격상해 기관영업과 신탁·연금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비이자영업본부’를 신설해 카드사업부, WM고객부, 외환사업부를 해당 본부에 배치했다. 이는 비이자 수익 확대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각 사업부서의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상품전략부 내에 외국인 금융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을 전담할 ‘외국인 전략사업팀’도 신설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비이자 영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급변하는 금융 시장 환경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적임자를 신임 임원으로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전문성과 영업력을 인정받는 직원을 대거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7면 최권범 기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0 31 32 35 36 37	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8억7434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456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2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상의, 올해 ‘경제포럼 조찬강연회’ 성료

기업 관계자 등 1천여명 수강 ‘새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청’

광주상공회의소가 2024년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첫 강연은 지난 2월27일 ‘저성장 시대: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24일 ‘미 대선 결과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올해 포럼을 마무리했다.

광주경제포럼은 1997년 창립 이후 27년간 광주시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경제계 정기 행사로, 급변하는 경영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 및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양질의 강연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올해에도 10회의 조찬강연

을 개최하며 연간 1000여명의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경영 이슈 및 트렌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11월에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베스트셀러 ‘칩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크리스밀러)를 무료 배포하는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식량문제 등으로 CES 2024에서 주목을 받았던 ‘푸드테크’에 대해 쉽고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9월에는 지역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 이슈 분석 및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1월에는 ‘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 전

략’에 대한 강연을 통해 지역이 우선해야 할 지점들과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루었으며 지역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포럼 역시 올해보다 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광주상의가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제포럼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gjcci.or.kr)를 참고하거나 기획조사본부(062-350-5863)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 中企, 새해 경기전망 ‘먹구름’

내년 1월 업황 지수 ‘하락’

신년 초에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29일)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17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3.3(전국 평균 68.1)으로 전월(77.2) 대비 3.9p 하락

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전년 동월(79.3) 대비로는 6p 하락이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2.8) 대비 0.5p 하락한 72.3, 전남은 전월(81.1) 대비 7p 하락한 74.1로 각각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74.2로 전월(76) 대비 1.8p, 비제조업은 72로 전월(78.7) 대비 6.7p 각각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으로는 내수판매(72.4→69.4), 수출전망(87.9→80.6), 경상이익

(71.7→67.7), 자금사정(69.6→65.7)은 모두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0.8→90.6)만 나아졌다.

올해 12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애로는 인건비상승(39.6%)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출(제품 판매) 부진(37.8%)이 뒤를 이었다.

지난 11월 광주·전남 중소제조업의 평균동률은 70.2로 전월(70.6%) 대비 0.4% 하락했다. 광주는 69.1%로 전월(68.9%) 대비 0.2%p 상승, 전남은 전월(72.3%) 대비 0.9%p 하락한 71.4%로 나타났다.

박소영 기자

한국은행 지역본부, 설 명절 특별자금 300억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설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300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600억원) 이내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 이내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2024년12월 현재 연 1.50%)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5년 1월2일부터 27일

까지다. 단, 부동산업, 유흥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수익업 등 대출제한 업종 및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대금 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